

| 업종별위원회_ 해운산업위원회 소개 |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한국 해운, “해운재건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맞을 올려”

손영우 전문위원

최초로 제안된 업종별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는 2018년 2월 7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에서 처음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어서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4월 3일)에서 해운산업의 업종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식 제안되면서 노사정위원회 사무국에선 제안자 및 해운산업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운산업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특히, 4월 5일 발표된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자리에서 고용계획이 없음이 지적되었고, 해운재건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선원노련을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노·사·정 주체들 간에 해운산업위원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6월 21일 해양수산부에서 업종별위원회에 참여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참여결정으로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화주협회의도 참여의사를 전해왔다. 그 결과 8월 22일 해운산업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선원노련에서 제시한 3대 의제를 검토했고, 이후 화주협회의는 의제와 관련성이 적다는 판단으로 불참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3차에 걸친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제를 구체화하고 선원고용실태 파악을 진행하면서 11월 23일 해운산업위원회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발족 의의 및 목표

해운산업은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7%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조선·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유사시 군수품 및 전략물자를 수송 처리하는 우리 경제, 안보의 중요 산업이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래로 장기불황이 지속되다가 최근 일부 회복세를 보인다.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대형선사들 간의 새로운 연합과 M&A가 추진되는 등 새롭게 국제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국내에선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해운산업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해운산업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가 점차 개선되는 상황으로, 향후 해운 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한국 해운을 재건하기 위해 해운산업의 노·사가 공정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유지 및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운산업위원회를 발족한다. 해운산업위원회는 해운재건 정책과 좋은 일자리를 연계시켜 해운재건 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무엇보다 ‘해운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방안’ 수립에 매진한다.

주요 의제

해운산업위원회의 의제는 국적선대의 운송물량 확보와 신규 선박 건조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되, 이와 같은 방안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와 연동되어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이는 현재 국적선대의 화물 확보와 적취율 제고에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된다. 또한 국적 선대의 화물 확보와 적취율 제고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원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참여하는 ‘일자리 연대 기금’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분	위원 명단
위원장(1)	한종길(성결대학교 교수)
노동계(1)	이유승(선원노련 정책본부장)
경영계(1)	조봉기(한국선주협회 상무)
정부(2)	서진희(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윤성혁(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 플랜트과장)
공익(5)	이윤철(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황진회(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장), 홍성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창영(한국항공대학교 겸임교수), 성우린(청년해운조선물류인 모임 대표)
전문위원	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